



스물네번째 이야기

使役 日常

[선교지 선교사역 ⑤ 선교사 이야기]

오늘은 새벽 6시 30분 케냐와 탄자니아의 국경 부근에 있는 이스바니아를 가기 위해 남편 신동준 선교사가 집을 나섰습니다. 무려 버스로서만 10시간이 걸리는 곳이기도 하고 초행길이라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나이로비에서 운전할 때면 가끔 곡예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섬뚱섬뚱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아요. 그간 신동준 선교사가 사역을 갔을 때 여러 차례 사고가 있어서 집을 떠날 때면 항상 걱정이 많지요. 아무리 조심조심하고 다녀도 역주행과 과속, 갓길운전, 새치기 등등 이곳 사람들은 운전대를 잡으면 무법자가 되는 듯해요.



오후 5시 30분, 10시간가량을 여행하고 목적지에 잘 도착했지만, 운전자가 시간이 아까운지 쉬지도 않고 달려서 배도 고프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문자가 왔네요. 잠시 쉽도 없이 그곳에서 기다리는 학생들과 만나야 했습니다. 거친 길 때문에 차가 꿀렁꿀렁거리어서 허리도, 머리도 너무 아프다는 남편.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와야 하는데 허리가 괜찮을지 걱정이 됩니다. 집에 돌아오는 남편을 최대한 따뜻하게 맞아야겠어요.

집을 나선 지 49시간 만에 돌아왔어요. 피곤한 모습은 역력했지만 웃으며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 곧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나쿠루를 가야 해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네요.

새벽 일찍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하고 신 선교사와 함께 Cristian Outreach 교단장과 만나기로 한 나쿠루를 향했습니다. 오늘 그곳 교단 성경학교에서 BEE 프로그램을 수용할지를 의논하기 위해 9명의 보드 위원이 모인다고 해서 가는 중요한 일정이에요. 새벽 2시부터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과 아침 준비를 해놓고 4시 40분에 집을 나섰어요. 혹시나 피곤해서 졸음운전을 할까 봐 말동무나 할 겸 같이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덕분에 택시를 타고 학교에 가야 했지만요. 평상시도 힘들지만 새벽에는 바로 앞도 구분하지 못할 만큼 안개가 자욱해서 정말 조심조심 운전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도 겁 없이 달리는 버스들, 안타깝게도 도로에서 사고 난 차들을 종종 보게 돼요.



9시 약속이었는데 11시 30분에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리아 타임만큼 아프리카도 만만치 않아요. 덕분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교단장과 시간도 가질 수 있어, 준비해간 홍삼을 선물로 드리니 좋아하시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를 드시네요.

모임이 시작되고 보드 위원분들 앞에서 BEE curriculum을 소개하니 교단장님께서 엄청 적극적으로 BEE 사역을 추천해 주셔서 일단 그곳에 참여했던 목사님들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기 위해서 많은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지낸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알면서도 속아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해요. 그럼에도 이 교단에 BEE 사역이 전달되어서 이곳에 있는 많은 목회자와 관련된 분들이 양질의 교육을 경험하기를, 그것을 통해 참된 복음을 이 땅의 교회에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아직도 많은 이 곳의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남편 신 선교사와의 짧은 여행을 마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피곤도 하지만 저녁을 챙겨야 하고 세미나 준비도 해야 하는데 자꾸 눈이 감기려 하니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옵니다. 내일 아침부터 AIU(Africa International University)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대일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이 그룹에 계신 에티오피아 학생인 인디그레아스 목사님의 아내분이 이 세미나를 시작하게 도와주셨어요. 또 저희가 갈 때마다 정성스레 에티오피아 음식을 대접해 줍니다. 힘드신다고 준비하지 마시라 해도 injera를 먹어보라고 적극적으로 권해주시네요. 한국의 술빵이 난처럼 되어있는 모양인데 무척 신맛이 강해요. 가나에서 먹었던 반쿠 생각도 나는 것을 보니 점점 아프리카에서 사는 게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약간은 낯선 강한 신맛도 입에 짹짹 달라붙는 것이 나중엔 가나의 반쿠처럼 그리워질 음식일 것 같네요.



사역 일상 속에 있는 신동준 선교사는 지난주 탄자니아 아루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케냐 이스바니아, 나쿠루에서 세미나 준비 및 진행, 사역자의 교재 전달, 여러 행정일 등등 바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기쁨과 겸손으로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드릴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글쓴이 홍지연 선교사]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가득할 때 남편의 직장 성경공부를 통해 BEE를 소개받고, 함께 아웃리치를 다녀오면서 세 아이의 엄마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깨닫게 되었다. 남편과 함께 기도하며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되어 지금 케냐에서 남편 신동준 선교사와 사역을 하고 있다. 자녀로는 요한, 온유, 하연이가 있다.

[정리: 김옥숙 편집: 최선]

주
그것이 알고싶다

선교지  브라질



출처: 연합뉴스

[축제-카니발(Carnival)]

Rio de Janeiro, São Paulo, Salvador, Recife 등 4개 도시를 중심으로 매년 2-3월 사이 브라질 전역에서 성대하게 개최되고 있다. 화려한 축제를 넘어서 다민족 국가인 브라질의 정체성이 담긴 행사로, 사회·정치적 불만에 대한 배출과 자유에 대한 열망이 반영된 행사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매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 하루 전날이 카니발 시작이다.

BEE 소식

1. 2021년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이웃과도 그 친밀함을 나누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17:21).”
2. 매일 아침 8:00! BEE 선교사역을 위한 5분 중보 기도! 깊어가는 가을, 114명의 기도의 용사와 함께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사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요!
3. 양재 10월 30일(토), 양재 BEE 기도모임 5주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의 동역자인 양재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4. 올해 초에 시작된 로마서 8장 암송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BEE수’에서 8주 동안 8장을 복습하면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안에 알맞은 단어를 순서대로 적어서 BEE수 편집팀장 김옥숙 개인 카톡이나 이메일 (joyfuloksuk@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첫 번째 정답자에게 유용한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선착순입니다!

*[8장 1-4절]

1. 그러므로 이제 () ()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 없나니
2. 이는 () ()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 ()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 율법이 ()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은 하시나니 곧 ()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 있는 ()의 모양으로 보내어 ()에 ()를 정하사
- 4.()을 따르지 않고 그 ()을 따라 행하는 ()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 이니라